

2019년 11월 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월버 로스 상무장관 발언으로 강세 로스 장관, ①화웨이 규제 완화 ②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철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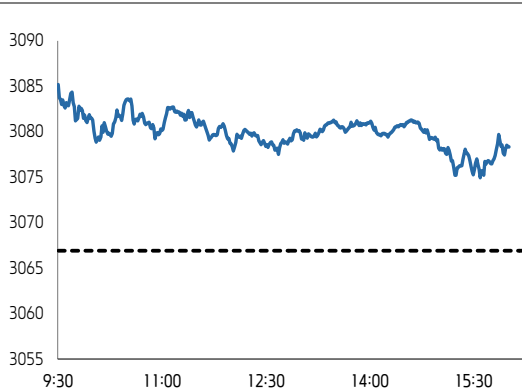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

미 증시는 지속적인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긍정적 발표 내용에 힘입어 상승. 특히 반도체, 산업재, 에너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그러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을 장중에 일부 반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바이오 업종이 이를 주도(다우 +0.42%, 나스닥 +0.56%, S&P500 +0.37%, 러셀 2000 +0.51%)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발언이 오늘 미 증시 상승을 이끌. 로스 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 면허를 곧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야기. 더불어 이달 안에 1 단계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화웨이가 미국 협상 카드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 더불어 14 일 예정된 미국의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 최근 EU, 일본, 그 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 이 발언에 힘입어 독일 증시에서 BMW(+3.11%), 폭스바겐(+2.91%) 등 자동차업종이 강세를 보임.

한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금요일 S&P500 기업들 중 71%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6%의 기업들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러나 3 분기 영업이익 지난 1Q(yoy -0.4%), 2Q(yoy -0.4%)에 이어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추정치를 발표. 더불어 4Q 도 전년 대비 0.4%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국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높다고 주장. 이런 가운데 S&P500 기업들의 12 개월 FWD PER 이 17.2 배로 10 년평균(14.9 배)는 물론 5 년 평균(16.6 배)을 상회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어짐.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감행했던 시기에는 18 배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외에는 17 배를 넘어서면 차익 매물 출회가 높아졌던 점을 감안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실제 오늘 미 증시에서 지난 주 상승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지수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
| KOSPI | | 2,130.24 | +1.43 | 홍콩恒生 | | 27,547.30 | +1.65 |
| KOSDAQ | | 668.45 | +0.92 | 영국 | | 7,369.69 | +0.92 |
| DOW | | 27,462.11 | +0.42 | 독일 | | 13,136.28 | +1.35 |
| NASDAQ | | 8,433.20 | +0.56 | 프랑스 | | 5,824.30 | +1.08 |
| S&P 500 | | 3,078.26 | +0.37 | 스페인 | | 9,416.40 | +0.95 |
| 상하이종합 | | 2,975.49 | +0.58 | 그리스 | | 879.25 | -0.13 |
| 일본 | | 22,850.77 | 휴장 | 이탈리아 | | 23,311.43 | +1.6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9%

퀄컴(+1.81%), 자일링스(+4.24%), 마이크론(+2.50%), NVIDIA(+3.90%), 인텔(+1.95%) 등 반도체 관련주는 화웨이 이슈 완화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 대만의 Aspeed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캐터필라(+1.67%), 3M(+2.81%), GM(+1.11%), 포드(+1.35%) 등은 무역협상 기대 및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애플(+0.66%)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장중 하락하기도 하는 등 소폭 상승에 그쳤다.

국제유가는 무역협상 기대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엑손모빌(+2.97%), 셰브론(+4.63%), 코노코필립스(+1.49%) 등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JP모건(+0.80%), BOA(+1.89%) 등 금융주도 무역협상 기대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언더아머(-18.92%)는 미 법무부가 분식회계 조사 가능성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더불어 수요 부진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 발표도 급락 요인 중 하나였다. 맥도날드(-2.72%)는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CEO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KB홈(-5.12%), 플룻그룹(-4.70%) 등 건설업체는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우버(-0.92%)는 시간 외로 6% 내외의 하락을 하고 있다.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4.85% | 대형 가치주 ETF(IVE) | +0.68% |
| 에너지섹터 ETF(OIH) | +5.04% | 중형 가치주 ETF(IWS) | +0.62% |
| 소매업체 ETF(XRT) | +1.65% | 소형 가치주 ETF(IWN) | +0.98% |
| 금융섹터 ETF(XLF) | +0.86% | 대형 성장주 ETF(VUG) | +0.12% |
| 기술섹터 ETF(XLK) | +0.52% | 중형 성장주 ETF(IWP) | -0.09%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0.71% | 소형 성장주 ETF(IWO) | +0.06% |
| 인터넷업체 ETF(FDN) | +0.56% | 배당주 ETF(DVY) | +0.61% |
| 리츠업체 ETF(XLRE) | -1.12%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82%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78%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31% |
| 바이오섹터 ETF(IBB) | -0.32% | 미국 국채 ETF(IEF) | -0.51% |
| 헬스케어 ETF(XLV) | -0.31% | 하이일드 ETF(JNK) | +0.16% |
| 곡물 ETF(DBA) | 0.00% | 물가연동채 ETF(TIP) | -0.07% |
| 반도체 ETF(SMH) | +2.13% | Long/short ETF(BTAL) | -1.29%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451.12 | +3.15% | +3.43% | +7.45% |
| 소재 | 372.93 | +0.78% | +1.79% | +6.00% |
| 산업재 | 684.05 | +1.20% | +3.00% | +7.81% |
| 경기소비재 | 957.26 | +0.11% | +0.31% | +2.59% |
| 필수소비재 | 621.43 | -0.94% | -0.72% | -0.56% |
| 헬스케어 | 1,093.62 | -0.35% | +1.63% | +5.26% |
| 금융 | 487.06 | +0.89% | +1.90% | +7.36% |
| IT | 1,493.20 | +0.55% | +1.33% | +6.08% |
| 커뮤니케이션 | 173.95 | +0.40% | +0.74% | +4.13% |
| 유틸리티 | 321.00 | -1.28% | -0.07% | -2.01% |
| 부동산 | 239.97 | -1.05% | -0.70% | -1.38%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실현 욕구 강화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159 계약 순매도 하자 0.10pt 하락한 283.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2.8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을 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전일 이미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부터 상해에서 무역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기조연설을 하며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1 차 협상 서명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만의 서버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인 ASPEED 가 10 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49% 급증했다고 발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버 DRAM 의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일 수 있어 관련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된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증시는 지수 보다는 종목에 주목하며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공장주문 둔화 지속

9 월 미국 공장주문은 전월 대비 0.6% 감소해 전월(mom -0.1%)은 물론 예상(mom -0.5%)을 하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주도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10 월 미국 고용동향지수는 전월(110.87) 보다 둔화된 110.11 로 발표되었다. 구성항목 대부분 전월 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가 높아지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향후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사우디 아람코가 두바이 경질유 판매 가격을 상향 조정 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12 월 12 일 있을 영국 총선이후 연정 구성에 난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영국발 정치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화웨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표를 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와 시진핑은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고 발표하는 등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1%, 철근도 0.03% 하락 했다.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56.54 | +0.60 | +1.31 | Dollar Index | 97.542 | +0.31 | -0.23 |
| 브렌트유 | 62.13 | +0.71 | +1.44 | EUR/USD | 1.1128 | -0.34 | +0.25 |
| 금 | 1,511.10 | -0.02 | +1.02 | USD/JPY | 108.58 | +0.36 | -0.34 |
| 은 | 18,066 | +0.08 | +1.06 | GBP/USD | 1.2880 | -0.51 | +0.13 |
| 알루미늄 | 1,815.00 | +1.62 | +4.49 | USD/CHF | 0.9878 | +0.21 | -0.68 |
| 전기동 | 5,877.00 | +0.46 | -0.52 | AUD/USD | 0.6883 | -0.30 | +0.66 |
| 아연 | 2,539.00 | +0.75 | -0.18 | USD/CAD | 1.3150 | +0.06 | +0.73 |
| 옥수수 | 383.25 | -1.54 | -0.20 | USD/BRL | 4.0177 | +0.67 | +0.64 |
| 밀 | 509.75 | -1.21 | -0.39 | USD/CNH | 7.0352 | -0.10 | -0.41 |
| 대두 | 938.00 | +0.13 | +0.27 | USD/KRW | 1159.20 | -0.55 | -0.98 |
| 커피 | 103.65 | -0.34 | +3.13 | USD/KRW NDF1M | 1162.86 | -0.14 | -0.42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 미국 | 1.774 | +6.32 | -6.85 | 스페인 | 0.306 | +3.50 | +0.30 |
| 한국 | 1.837 | +9.70 | +6.00 | 포르투갈 | 0.229 | +2.90 | -1.80 |
| 일본 | -0.176 | 0.00 | -5.40 | 그리스 | 1.177 | +0.10 | -3.30 |
| 독일 | -0.351 | +3.10 | -1.90 | 이탈리아 | 0.993 | +0.20 | -1.00 |